

동남아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의 태도 및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Bilingual Socialization of Mothers from Southeast Asia and Korean
Fathers on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and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허 청 아(Cheong-Ah Huh)¹, 그레이스 정(Grace H. Chung)^{2*}

¹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Family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dolescent development.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re brought up in a distinctive family environment, where they get to experience two different cultures within their families. Thus,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environ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intera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influence adolescents.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utheast Asian mothers' and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and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following two questions were addressed in this study: 1) Does bilingual socialization of each parent affect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2) Does children'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affect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survey data from the '2012 Nationwide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analysed, using SEM. The sample consisted of 318 multicultural adolescents (aged 9-17) living with Korean fathers and immigrant mothers from Southeast Asia.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mmigrant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The path from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to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immigrant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Second,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Results suggest that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bilingual socializ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each parent's bilingual socialization helps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form a positive identity as a me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주제어(Key words): 이중언어사회화(bilingual socialization),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 다문화가족 청소년(multicultural adolescents),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Grace H. Ch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620, E-mail: gracechung@snu.ac.kr

I. 서론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적인 환경을 긍정적 자원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문화 역량 증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언어 역량 증진 지원 사업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강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중국어·일본어·영어 등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주류언어의 언어구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H. Chung, Y. Kim, & A. Lee, 2013).

한편 국외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사용에 대해 단순히 언어구사능력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민족 정체성 형성을 돕는 등 '문화사회화'로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높여(R. M. Fernandez & F. Nielsen, 1986; S. K. Kim & R. K. Chaos, 2009)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 등을 유연하게 극복해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A. J. Umana-Taylor, M. O'Donnell, G. P. Knight, M. W. Roosa, C. Berkel, & R. Nair, 2013).

다문화가족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부모 모두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야 하는(J. Hong, 2012; S. Kasuga-Jenks, 2012) '사회화'의 일부이다. 또한 일본어나 중국어, 영어 등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언어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Y. Kim, H. Chung, E. Lee, & S. Chae, 2010)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는 언어구사능력을 위한 교육의 의미보다 문화전수과정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출신 다문화가족의 부모가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격려하고 교육하는 것을 '이중언어사회화'라고 명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중언어사회화'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인 배

경, 즉 자신의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출신이며 자신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J. Rodriguez, A. Taylor, E. P. Smith, & D. J. Johnson, 2009; A. J. Supple, S. R. Ghazarian, J. M. Frabutt, S. W. Plunkett, & T. Sands, 2006; A. J. Umana-Taylor & M. A. Fine, 2004). 또한 외국출신 부모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E. An, 2007; A. J. Umana-Taylor et al., 2013; S. Un, 2010)이나 자아정체성(S. Kim, & K. Yang, 2012; Rollins & Hunter, 2013)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히 중요하고(P. R. Amato & F. Fowler, 2002; J. Wilt, 2011), 여러 위기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R. Crosnoe, 2005; S. Schlabach, 2013) '외국출신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K. A. Rockquemore, T. Laszloffy, & J. Noveske, 2006).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때,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이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 청소년

1)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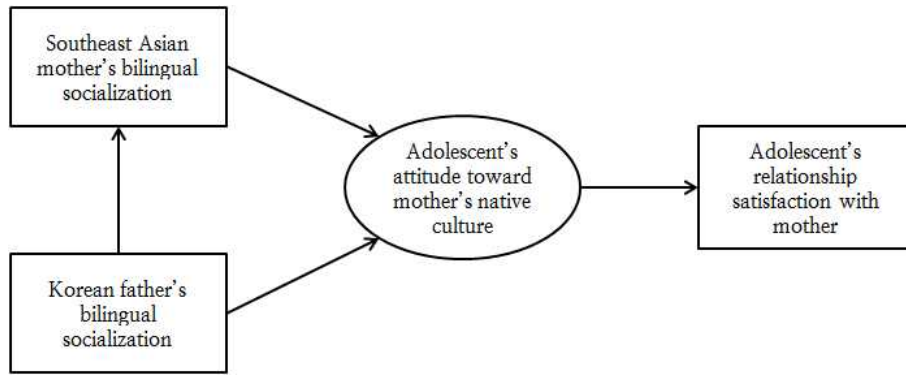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Table 1.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Immigrant Women by Nationality

	2001	2005	2010	2011	2012	2013
Southeast Asia	820(8.47%)	7,225(23.52%)	13,172(50.13%)	11,023(49.51%)	9,650(46.76%)	8,488(46.36%)
Northeast Asia	7,796(80.50%)	22,026(71.70%)	11,142(42.41%)	8,939(40.15%)	8,562(41.49%)	7,542(41.20%)
Other	1,068(11.03%)	1,468(4.78%)	1,960(7.46%)	2,303(10.34%)	2,425(11.75%)	2,277(12.44%)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immigrant women	9,684(100.0%)	30,719(100.0%)	26,274(100.0%)	22,265(100.0%)	20,637(100.0%)	18,307(100.0%)

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다문화가족은 266,547가구로 추정된다(K. Jeon et al., 2013).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가구)은 220,625가구로 전체 다문화가족의 8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일반 귀화자 등 가족(일반 귀화자 가구,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 이혼·사별한 출생한국인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은 45,922가구로 전체 다문화가족의 17.2%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성별은 여성이 80.7%, 남성이 19.3%로 분포되어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이 전체 다문화가족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과 그 자녀로 한정하고자 한다.

2013년 국제결혼가족 자녀는 191,328명으로 이는 2007년 44,258명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수치이다(Statistics Korea, 2014b). 2013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116,696명(약 61%), 만 7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은 45,156명(약 23.6%)으로 초등학생이하 연령 집단이 전체의 약 8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향후 10년 이내에 청소년기로 접어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여러 발달적 변화에 대처해 나가면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S. Kim, & K. Yang, 2012)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청소년기가 되어가면서 문제행동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K. Kwak, 2008)을 보았을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G. Kim, K. Kwak and S. Pae(2009)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 연구들은 대부분 미취학 자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적 변화양상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

1980년대부터 시작된 통일교의 범세계적인 국제결혼 사업과 1992년 이루어진 한·중 수교로(B. Yu & K. Ok, 2013)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과 조선족, 한족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Table 1>(Statistics Korea, 2014a)을 보면 2001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이룬 국제결혼 총 건수 중 동북아시아 출신이 전체의 약 80.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정부와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활발한 영업활동(I. Nahm & H. Jang, 2009)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과

의 국제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동북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을 넘어섰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이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외에 미국이나 유럽 등 기타 국가 출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결혼이민여성의 역사와 출신국적의 변화양상을 보았을 때 현재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에는 결혼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중국이나 일본출신 어머니를 둔 청소년이 대부분이며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자녀는 대다수가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이민여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출신국을 크게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와, 베트남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신국에 따라 외국출신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다른 출신국 어머니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결혼만족도 또한 가장 낮았으며(D. Kim, 2012), 다른 연구에서도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일본이나 중국출신 어머니 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S. Cha & D. Kim, 2008). 또한 동남아시아 출신의 어머니는 중국출신 어머니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J. Lee, S. Jin, H. Ju & Y. Cho, 2013).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자녀의 적응을 보면, 먼저 동남아시아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와는 다르게 동북아시아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는 외모의 차이점으로 인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S. Oh, 2005). 이러한 외모의 차이점으로 인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를 둔 아동은 어머니가 일본인인 아동에 비해 부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Y. Lee, 2007). K. Jun and M. Song(2011)은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3,298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일본출신 어머니의 자녀와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자녀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 출신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국적 출신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학교생활, 가족생활, 부모

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외국출신 부모에 대한 자긍심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들의 자녀는 가족생활에서의 화목 정도,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구 및 경북의 다문화가족 초등학교생 자녀 1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Y. Shin & C. Youn, 2010)에 의하면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아동은 중국, 일본출신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외국출신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어머니의 개인적 적응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 또한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점은 어머니의 출신국이 동남아시아인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

1)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가족 내 이중언어적 환경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환경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S. Un, 2010).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청소년과는 다르게 가족 내에서 '이중문화'라는 독특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의 내적 환경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규범과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은 주로 언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S. Y. Kim & R. K. Chao, 2009)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가족 내 이중문화적 환경 중 '언어적인 특수성'을 가장 많이 경험할 것이다. 가족 내 언어적인 특수성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자녀의 언어발달을 늦추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시각(Y. Cho, 2006)과 함께, 외국출신 어머니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출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의 연구결과들이 제시된다.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M. Park, 2010), 자녀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H. Woo, H. Juong, N. Choi, S. Yi & G. Lee, 2009; H. Choi & B. Hwang, 2009)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존감,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H. Park, C. Rhee,

Y. Rho & S. Lee, 2012)를 볼 수 있다.

외국출신 어머니의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 한국어 뿐 아니라 어머니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가족 자녀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고 이중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H. Chung, Y. Kim, & A. Lee, 2013).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내 이중언어적인 환경과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 관계적 역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문화사회화로서의 이중언어사회화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겪은 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연구들은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에 대해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문화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문화사회화’란 부모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그들의 인종이나 민족의 유산과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문화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따르게 하고, 문화적·민족적·인종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얘기해주거나, 전통 음식을 먹는 것, 자녀에게 가족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문화사회화에 속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민족 혹은 인종에 관한 정보 및 부모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민족·인종 사회화(Ethnic-racial Socialization)’의 하위유형 중 하나이며, 연구자들은 이 유형이 자녀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다(D. Hughes, J. Rodriguez, E. P. Smith, D. J. Johnson, H. C. Stevenson, & P. Spicer, 2006)¹⁾. 국내의 연구 중 유일하게 다문화가족의 외국출신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다문화가족의 민족·인종 사회화의 유형을 탐색한 M. Kim(2012)에 의하면 한국 다문화가족의 외국출신 어머니들이 가장 자주 보인 민족·인종 사회화는 문화사회화 유형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사회화의 핵심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중언어사회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단지 언어사용능력이 향상된다는 것 이외에 그 언어에 담긴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C. Nho & J. Hong, 2006)이며, 이중언어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있어 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기(K. Kwak, 2008) 때문이다. ‘이중언어사회화’에 관한 국외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국의 언어를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 내에서 출신국의 언어를 교육하는 것이 이민자 가족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다. 미국의 국가수준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해 히스패닉과 유럽계 미국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R. M. Fernandez & F. Nielsen (1986)에 따르면, 영어뿐 아니라 부모의 출신국 언어에 모두 능통한 것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 가족과 중국 이민자 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 Y. Kim & R. K. Chaos(2009)의 연구에서는 출신국의 언어가 유창한 청소년은 민족정체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업에 더 충실한 경향을 보였다. 이민자 가족 아동의 발달과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 M. Zhou(1997)는 단순히 이주국의 언어를 잘 하는 것 보다 이주국의 언어와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동의 적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 연구들은 이민자 가족 내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으나 주로 어머니 한 명만 타민족 출신인 한국의 다문화가족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행연구 적용에 신중함을 요한다.

국내의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이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E. An(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출신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출신국가 언어에 대해 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족 자녀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에 비해 학업적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이민여성과 그들의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H. Park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1) ‘민족·인종 사회화(Ethnic-racial Socialization)’는 자녀가 자신이 속한 민족을 포함하여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에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D. Hughes et al., 2006). 이는 미국 사회 내 이민자 가족이나 혼혈 가족이 외부사회와의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종적 차별을 유연하게 극복해내는 전략으로 개념화 되어 왔다(A. J. Umana-Taylor et al., 2013). D. Hughes et al. (2006)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20년간 축적된 ‘민족·인종 사회화(Ethnic-racial Socialization)’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 개념화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민족·인종 사회화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화사회화(Cultural Socialization)’ 외에 ‘차별에 대한 대비(Preparation for Bias)’, ‘불신촉진(Promotion of Mistrust)’, ‘평등주의와 인종에 대한 침묵(Egalitarianism and Silence about Race)’이 있다.

언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이중문화 노출정도는 양육참여를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출신 어머니와 다문화가족 유아의 언어양상을 살펴본 E. Lee and S. Oh (2012)의 연구에서는 외국출신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고 한국인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언어교육에 참여한 경우, 자녀가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J. Hong(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 내 모국어 사용에 대한 양상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가 있고 실제로 교육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이 때 한국어 중심의 언어 환경과 가족의 인식 부족은 이중언어 환경 조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의 지지와 관심, 특히 한국인 남편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는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내 아시아인과 백인 혼혈 가족의 민족·인종 사회화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한 S. Kasuga-Jenks(2012)에 따르면 주류문화 출신인 백인 부모는 문화적으로 소수인 아시아인 부모의 사회화를 격려해줌으로써 가족 내 이중문화사회화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적 지위에 따른 사회화과정의 역할을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에 적용시켜 보면, 외국출신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국어에 대해 가르치는 등의 이중언어사회화 과정에서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격려와 지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내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때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중언어교육이라고 명명한 것과 다르게 '이중언어사회화'라는 개념을 차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한다. 첫째,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외국출신 어머니 한 사람의 교육만이 아닌 부, 모 모두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사회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어나 일본어 등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주류언어에 대한 교육이 아닌,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Y. Jim et al., 2010)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과 격려는 단순히 언어적 구사능력을 위한 교육의 의미보다는 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의 일부로 가지는 의미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전수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영어'가 모국어인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는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3.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많은 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문화사회화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긍심 간 관계에 대해 밝혀왔다(J. Rodriguez et al., 2009; A. J. Supple et al., 2006; A. J. Umama-Taylor & M. A. Fine, 2004). 이 연구들에서는 흑인가족, 멕시코인 가족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문화사회화 과정이 자녀로 하여금 흑인 문화나 멕시코 문화 등 출신국가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출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학업 성취(A. J. Umama-Taylor et al., 2013)나 자아정체성(A. Rollins & A. G. Hunter, 2013)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출신국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 뿐 아니라 외국출신 부모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선행연구는 외국출신 부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1,626명을 대상으로 이중문화요인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밝힌 S. Kim and K. Yang(2012)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출신 부모의 나라와 이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한 E. An(2007)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출신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좋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그렇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학교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학교적응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대해 연구한 S. Un(2010)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출신 부모님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돕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4. 외국출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가족 내 청소년에게 외부의 위험요인이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정신건강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 존중감(S. An, H. Lee & J. Lim, 2013; S. Schlabach, 2013)과 자아탄력성(R. Crosnoe, 2005)을 높인다. 이 때 인종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간 관계에 있어 부모의 성별과 인종적 지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J. L. Bratter & K. Eschbach, 2008; S. Schlabach, 2013). 이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적용시켜보자면,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 지위가 높은 아버지와 관계, 문화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따로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 중 특별히 한국사회 내 문화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R. Rosnati & E. Marta, 1997). 미국의 전국적인 청소년 건강 종단 데이터를 이용해 다인종으로 구성된 가족 내 청소년 자녀의 가족 특성과 건강에 대해 연구한 S. Schlabach(2013)에 따르면 주류문화 속에서 문화적 지위가 낮은 '소수문화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소수문화출신 부모'를 둔 단일인종 가족 청소년과 '백인 부모'를 둔 청소년보다 사회적, 정서적 건강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 때 부모와의 관계는 '소수문화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조절 효과로 작용했다. 즉, 소수문화 출신의 어머니를 둔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 지위가 낮은 외국출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긍심이 부모와의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 A. Rockquemore et al., 2006)를 토대로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외국출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실태 조사는 2012년 7월 10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통계청 전문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K. Jeon et al., 2013). 조사대상은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이며 다문화가족 가구구성원별 조사표 4종을 통해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가구 구성원과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 구성표와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5,00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조사표, 이들의 배우자 총 13,859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조사표, 이들 가구의 만 9~24세 자녀 총 4,775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자녀 조사표 등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만 9~17세 청소년 자녀 조사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만 9세부터 만 17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청소년 3,946명 가운데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 기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 318명만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따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청소년의 경우만을 포함했으며,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으로 이주 후 경험하는 많은 과정이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청소년과는 다른 양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M. Yang, H. Gao, Y. Kim & D. Lee, 2012)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변수와 측정도구

(1)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청소년 자녀 조사표 중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소 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준다"라는 문항을,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소 집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배운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각각이 청소년 자녀에게 하는 이중언어사회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청소년 자녀 조사표 중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당신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로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관심이 없다(1점)’부터 ‘매우 관심이 많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문항은 “당신은 부모님 중 한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점)’부터 ‘매우 자랑스럽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문항은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로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79$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청소년 자녀 조사표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점수화방식은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를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기술통계,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만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어머니 출신국적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M. E. Sobel(1982)의 검증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함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χ^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 않는다(S. Hong, 2000).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고려하였다. TLI와 CFI는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이며 대략 0.9이상이면 적합도는 좋다고 볼 수 있다. RMSEA는 이론모형의 적합도를 다른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대략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이다. TLI, CFI, RMSEA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이다(S. Hong, 2000).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자녀 318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166명(52.2%), ‘여학생’은 152명(47.8%)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이들의 연령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9세부터 만 11세’가 142명(44.7%),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만 14세’가 101명(31.7%),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만 17세’가 75명(23.6%)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가장 많았다. 이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1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 94명(29.6%), ‘300~400만원 미만’ 56명(17.6%), ‘100만원 미만’ 23명(7.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동부 거주자가 149명(46.9%), 읍·면부 거주자가 169명(53.1%)으로 읍·면부 거주자가 더 많았다. 어머니의 출신국적의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124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114명(35.8%),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Gender	Male	166	52.2
	Female	152	47.8
Age	9-11 years old(elementary school student)	142	44.7
	12-14 years old(middle school student)	101	31.7
	15-17 years old(high school student)	75	23.6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0,000 won	23	7.3
	1,000,000-1,999,999 won	94	29.6
	2,000,000-2,999,999 won	117	36.8
	3,000,000-3,999,999 won	56	17.6
	4,000,000-4,999,999 won	12	3.8
	5,000,000-5,999,999 won	9	2.8
Area of Residence	Urban	149	46.9
	Rural	169	53.1
	Country of Origin		
	Vietnam	124	39.1
	Thailand	114	35.8
	Cambodia	37	11.6
	Other ¹	43	13.5
Total		318	100.0

1)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를 '동남아 기타'로 분류하였다(K. Jeon et al., 2013).

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1	2	3	4	5	6
1.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1					
2.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438***	1				
3. Interest in mother's native country	.251***	.428***	1			
4. Pride for immigrant mother	.340***	.466***	.559***	1		
5. Interest in native language of immigrant mother	.325***	.576***	.643***	.492***	1	
6. Adolesc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mother	.198***	.316***	.547***	.509***	.513***	1
Mean	2.84	2.53	3.32	3.32	3.20	3.95
Standard Deviation	1.25	1.37	1.19	1.08	1.44	1.00

*** $p < .001$

라오스를 포함하는 '동남아 기타' 43명(13.5%), '캄보디아' 37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준편차,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각 측정변인들은 .198에서 .643사이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2.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1-2번),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3-5번),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6번)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이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

3.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 및 관계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의 잠재변인인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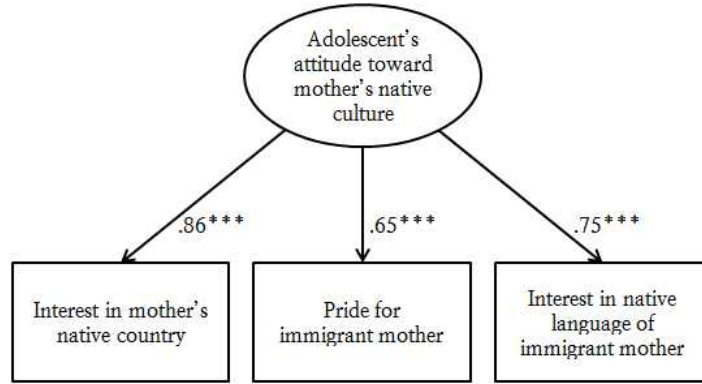


Figure 2. Measurement Model for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 $p < .001$

Table 4. Model Fit Indices for Structural Model (N=318)

	χ^2	df	p	TLI	CFI	RMSEA
Structural model	21.075	7	.004	.955	.979	.080

Table 5.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Path		B	β	S.E.	t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481	.438	.055	8.685***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099	.142	.036	2.738**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360	.564	.040	9.112***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 Adolesc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mother	.710	.621	.065	10.954***

** $p < .01$, *** $p < .001$

한 자녀의 태도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대한 관심,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관심의 세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나타낸 요인 부하량을 제시한 <Figure 2>를 보면, 세 변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65에서 .86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검증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Table 4>과 같다. TLI는 .955, CFI는 .979, RMSEA는

.080으로 각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에 구조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에 따른 경로계수와 그림은 각각 <Table 5>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1)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와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를 지니며($\beta = .438, p < .001$), 이를 통해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 정도가 높을수록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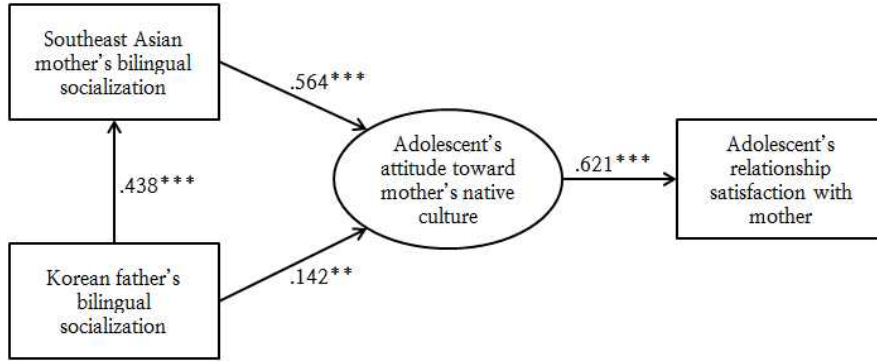


Figure 3. Structural Model

** $p < .01$, *** $p < .001$

Table 6. The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obel-test)

Path	Z
Korean fa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Southeast Asian mother's bilingual socialization → Adolescent's attitude toward mother's native culture	7.221***

*** $p < .001$

계를 가지는 동시에($\beta = .142, p < .01$),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 때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가 매개($Z = 7.221, p < .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621, p < .001$). 즉,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출신 어머니로 이루어진 총 318명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내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태도 및 관계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

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청소년 자녀 조사 데이터 중 만 9세부터 만 17세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동남아시아(필리핀 제외)에서 이주한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인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동남아출신 어머니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할수록, 동남아출신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더 많이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류문화 출신인 부모가 문화적으로 소수인 부모의 사회화를 격려해줌으로써 가족 내 이중문화사회화에 참여한다고 밝힌 S. Kasuga-Jenks(201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의 연구 중에는 J. Hong(2012)의 연구에서 베트남출신 어머니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교육하고자 할 때 한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지지적인 태도가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J. Hong(2012)의 연구는 베트남출신 어머니 7명의 응답에 대한 결과로 양적인 객관성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는 이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가족 내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동남아출신 어머니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

록 격려하는 것은 그 자녀가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이중언어사회화 높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이중문화적인 환경, 즉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사람이 외국출신이라는 것과 자신이 다문화가족의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돕는다는 여러 국외의 연구결과들(J. Rodriguez et al., 2009; A. J. Supple et al., 2006; A. J. Umana-Taylor & M. A. Fine,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했던 것과 같이 청소년 자녀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학교 적응(E. An, 2007; A. J. Umana-Taylor et al., 2013; S. Un, 2010), 자아정체성(A. Rollins & A. G. Hunter, 2013)과 자아탄력성(S. Kim & K. Yang, 2012) 등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둘째,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동남아출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모국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등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며(R. Rosnati & E. Marta, 1997),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 중에서도 문화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S. Schlabach, 2013), 정신건강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선행연구(R. Crosnoe, 2005)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히 중요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함께 현재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년~2012년)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정책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가족 내 이중언어사회화에 있어 한국인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교육과 함께 결혼이민자 가족 내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교육하는 것을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와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는 가족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 정부에 들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언어와 문화에 대한 역량 증진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H. Chung, Y. Kim & A. Lee, 2013),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이중언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가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외국출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국정과제(이중언어와 문화에 대한 역량 증진,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H. Chung, Y. Kim & A. Lee, 2013)에 따르면 현행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등 이중언어로 선호되는 ‘주류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구사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로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Y. Kim et al., 2010)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히 언어적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보다 ‘문화 전수 과정’의 일부로서의 이중언어 교육이 가지는 의의를 밝혔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주류 언어를 중심으로 구사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중언어 교육이 아닌, 결혼이민자가 각 가족 내에서 이중언어 교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가 격려할 수 있게 하는 가족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 바이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중언어환경을 가족 내에서 조성하도록 돕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학교에서 시행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부모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격려하고 교육하는 사회화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하여금 동남아출신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가족 내 이중문화사회화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긍정적인 다문화 정체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을 '가족환경'이라는 미시적인 체계 속에서 탐색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역동을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수의 타당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쓰인 부모의 이중언어사회화와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타당성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중언어사회화를 포함하는 문화사회화와 관련해 많은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양적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 다문화가족 실정에 맞는 척도가 개발되고 이에 맞는 용어가 정의된다면 다문화가족 내 이중문화적인 환경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관계만족도 간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 따라 어머니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했으며 그 결과 두 변수 간 경로가 유의하게 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변수가 모두 긍정적인 요인을 측정하고 있어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으며, 두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 내 이중언어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인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는 점과 비주류언어인 동남아출신 어머니의 모국어를 중심으로 가족 내 문화전수과정으로서의 이중언어사회화를 조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mato, P.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03-716.
- An, E.-M. (2007). *Study on factors e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in the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n, S.-J., Lee, H.-C., & Lim, J.-Y. (2013). The influences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77-91.
- Bratter, J. L., & Eschbach, K. (2006). What about the couple? Interracial marriage and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 Science Research, 35*(4), 1025-1047.
- Cha, S.-E., & Kim, D.-S. (2008).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3), 131-157.
- Cho, Y. D. (2006).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2006-issue-3). Ministry of Education.
- Choi, H.-W., & Hwang, B.-M. (2009). A effect of mother's Korean abilities on their children's Korean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4), 315-329.
- Chung, H.-S., Kim, Y.-S., & Lee, A. (2013).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on bilingual educ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Cronsnoe, R. (2005). Double disadvantage or signs of resilience? The elementary school contexts of children from Mexican immigrant famil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2*(2), 269-303.
- Fernandez, R. M., & Nielsen, F. (1986). Bilingualism and hispanic scholastic achievement: Some baseline results. *Social Science Research, 15*(1), 43-70.
- Hong, J. M. (2012). Exploratory research on multi-cultural bilingual educa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16*(3), 279-302.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ughes, D., Rodriguez, J., Smith, E. P., Johnson, D. J., Stevenson, H. C., & Spicer, P. (2006). Parents' ethnic-racial socialization practices: A review of research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747-770.
- Jeon, K.-T., Chung, H.-S., Kim, Y.-S., Joo, J.-S., Lee, J.-B., Chung, K., Hwang, M.-J., Kang, M.-J., Sun, B.-Y., Choi, Y.-J., Chu, Y.-S., Park, G.-P., & Tong, C. (2013).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2012-5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Jun, K. S., & Song, M. K. (2011). A research on the differences of adjustment level by multicultural children's nationalit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11), 305-330.
- Kasuga-Jenks, S. (2012). *Multiple voices: Racial and ethnic socialization within interracial Asian and White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1033504710>. (UMI No. 3517943).
- Kim, D.-S. (2012). Spousal dissimilarity in age and education and marital stability among transnational couples in Korea : A Test of 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1-30.
- Kim, G. Y., Kwak, K. J., & Pae, S. Y. (2009).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n Korea: A critical review.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8(3), 571-597.
- Kim, M.-J. (2012). A study of ethnic-racial socialization of foreign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2(5), 73-89.
- Kim, S. K., & Yang, K. M. (2012). The study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ego-resiliency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147-176.
- Kim, S. Y., & Chao, R. K. (2009). Heritage language fluency, ethnic identity, and school effort of immigrant Chinese and Mexican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1), 27-37.
- Kim, Y.-S., Chung, H.-S., Lee, E.-A., & Chae, S.-H. (2010). *Study on use and success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wak, K. J. (2008). Th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interaction pattern of parents-children and the effec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6.
- Lee, E.-K., & Oh, S.-S. (2012). The language aspect of th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language use of their mothe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177-205.
- Lee, J. H., Jin, S. J., Ju, H. J., & Cho, Y. S. (2013). The impact of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family health: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87-98.
- Lee, Y.-J. (2009). A study on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a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2), 103-119.
- Nahm, I. S., & Jang, H. S. (2009). Special issue: Multicultural age and social ethics: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native countr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35, 7-31.
- Nho, C. R., & Hong, J. J.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59.
- Oh, S. (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3), 61-83.
- Park, H. S., Rhee, C. W., Rho, Y. H., & Lee, S. G. (2012). Impact of bilingual, bicultural home environment on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outcom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1), 365-388.
- Park, M. (2010).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0(2), 193-218.
- Rockquemore, K. A., Laszloffy, T., & Noveske, J. (2006). It all starts at home: Racial socialization in multi-racial families. In D. Brunnsma (Ed.), *Mixed messages: Multiracial identities in the "color-blind" era*

- (pp. 203-216).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 Rodriguez, J., Taylor, A., Smith, E. P., & Johnson, D. J. (2009). Cultural processes in parenting and youth outcomes: Examining a model of racial-ethnic socialization and identity in diverse populatio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2), 106-111.
- Rollins, A., & Hunter, A. G. (2013). Racial socialization of biracial youth: Maternal messages and approaches to address discrimination. *Family Relations, 62*(1), 140-153.
- Rosnati, R., & Marta, E. (1997). Parent-child relationships as a protective factor in preventing adolescents' psychosocial risk in inter-racial adoptive and non-adoptive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t, 20*(6), 617-631.
- Schlabach, S. (2013). The importance of family, race, and gender for multiracial adolescent well-being. *Family Relations, 62*(1), 154-174.
- Shin, Y. J., & Youn, C. Y. (2010). Bicultural adjustment, peer relationship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2), 1-14.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tatistics Korea. (2014) <http://kosis.kr/>
- Statistics Korea. (2014) www.index.go.kr
- Supple, A. J., Ghazarian, S. R., Frabutt, J. M., Plunkett, S. W., & Sands, T. (2006). Contextual influences on Latino adolescent ethnic identity and academic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5), 1427-1433.
- Umana-Taylor, A. J., & Fine, M. A. (2004). Examining ethnic identity among Mexican-origin adolescen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6*(1), 36-59.
- Umana-Taylor, A. J., O'Donnell, M., Knight, G. P., Roosa, M. W., Berkel, C., & Nair, R. (2013). Mexican-origin early adolescents' ethnic socialization, ethnic identity,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10), 1-31.
- Un, S.-K. (201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37-74.
- Wilt, J. (2011). Normal families facing unique challenges: The psychosocial functioning of multi-racial couples, parents and children. *The New School Psychology Bulletin, 9*(1), 34-41.
- Woo, H. K., Juong, H. S., Choi, N., Yi, S. H., & Lee, G. (2009).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23-36.
- Yang, M.-J., Gao, H.-Y., Kim, Y. H., & Lee, D.-H. (2012). A qualitative research on immigration experiences and accultur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2), 87-113.
- Yu, B.-A., & Ok, K.-H. (2013).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511-538.
- Zhou, M. (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of immigrants. *Annual Reviews, 23*, 63-95.

Received: January 15, 2015

Revised: March 20, 2015

Accepted: March 22, 2015